본당 소식

♣ 2026/28 밀라노 한인성당 사목위원회

- 지난 2년 동안 저희 본당을 이끌어주신 2024/26 회장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시작하는 2026/28 사목위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 2027 세계 청년대회 참가 안내

- 교구 대회 : 대구대교구 포항(27년 7월 29일~8월 2일, 4박 5일)
- 본 대회 : 27년 8월 3일~8월 8일, 5박 6일
- 대상 : 16세 이상(2027년 7~8월 기준), 선착순 30명
- 참가비 : 약 800유로(항공료 불포함)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카톡 본당 공지방 첨부)하셔서 bundotour@naver.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모임 / 회의

- 26/28 회장단 첫 사목 회의 : 11월 8일(오늘),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68.10€ • 교무금 400.00

전례 성가

입당 : 27 (이 세상 덧없이)
봉헌 :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성체 : 499 (만찬의 신비)
157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파견 :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8일)	다음 주일(11월 15일)
1독서 : 정상현 안토니오	1독서 : 서인복 리노
2독서 : 우윤정 마리아	2독서 : 류정연 릿다
복 사: 강윤아 헬레나 / 안태오 마태오	복 사: 정아인 레나 / 강윤이 스텔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강한 프란체스코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안희관 요셉 ·성모회장: 우윤정 마리아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문형민 셈 ·청년구역장: 김우진 크리스티나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정명용 미카엘 ·3구역장: 이경진 카타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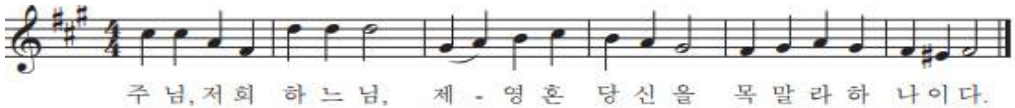
2026년 11월 8일 주일

(녹)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1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6,12-16)
12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3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14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15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16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4,13-18)
13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16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17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을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특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어,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만을 좇기보다 진리와 정의, 사랑의 참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 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참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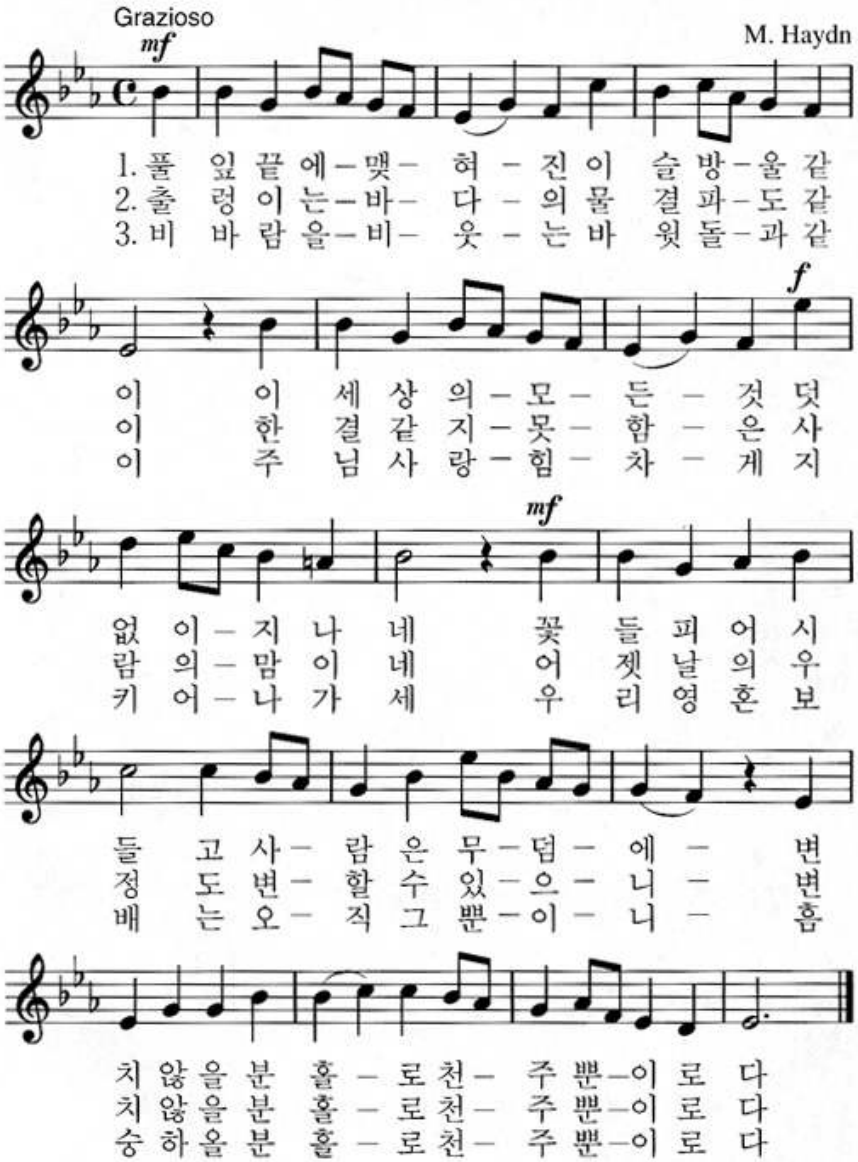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연중

27 이 세상 덧없이

Grazioso

M. Hayd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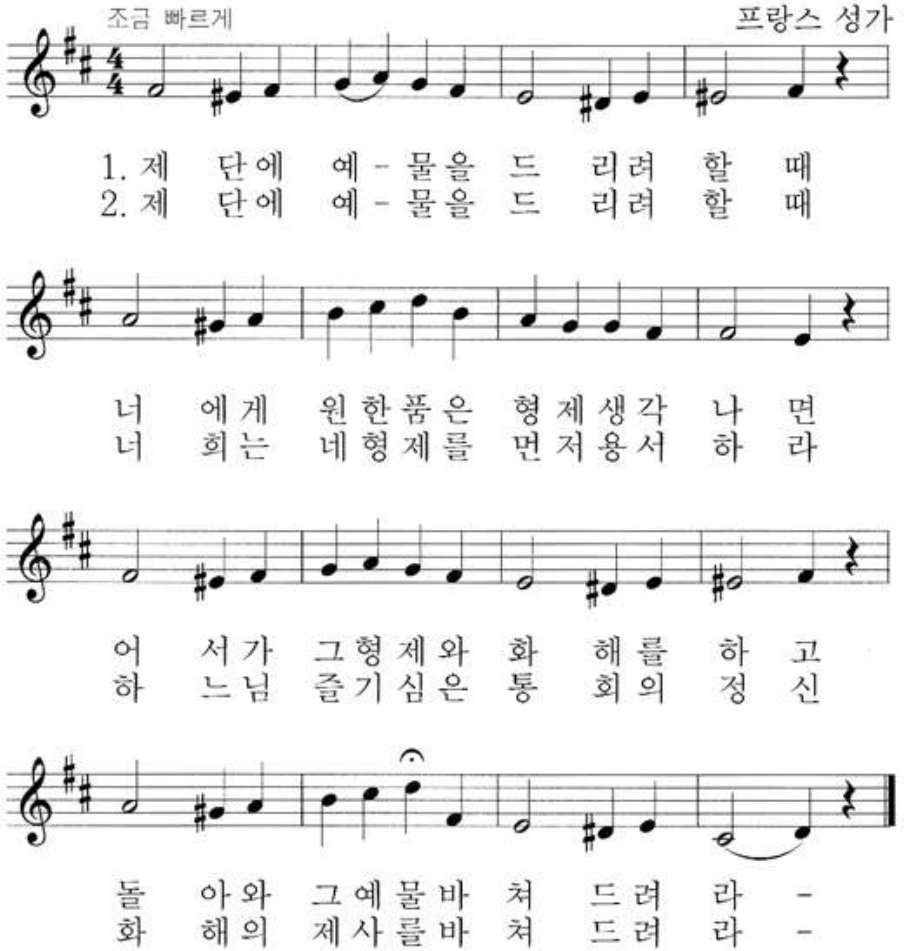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마태 5,23-24)

봉헌

조금 빠르게

프랑스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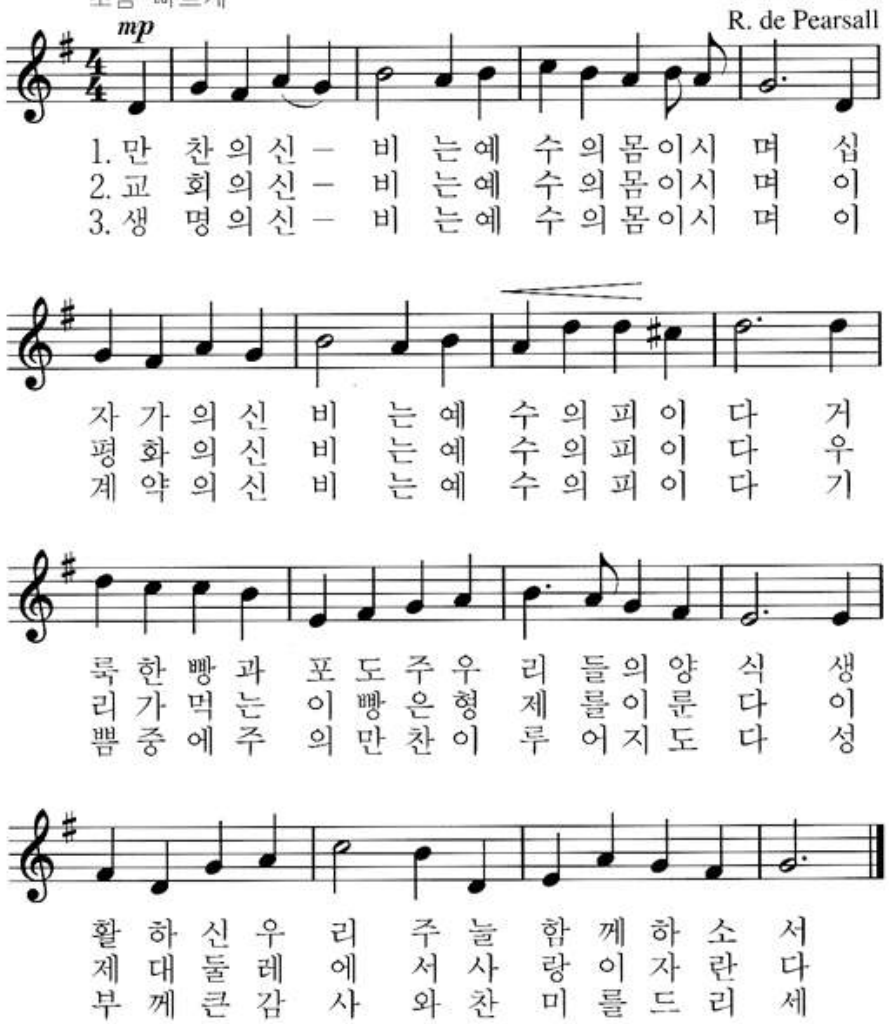


499 만찬의 신비

성체

조금 빠르게

이순규 역사
R. de Pearsall



연중

온 세상에 전파하리 63

Moderato

김금자

